

민중사회학에서 포스트마르크시즘까지

사회학에서의 진보적 인식들과 그 영향 및 쟁점

박형준

동아대 강사 · 사회학

“급변하는 현실은 많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진보성으로 포장된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이나 반대로 전문성으로 포장된 세련된 보수주의에도 안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도권 학계와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면서 성장해온 진보적 연구자 집단이 서로를 향해 대화와 비판의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 조희연, 조동춘, 「80년대 비판적 사회이론의 전개와 민족 민중사회학」 중에서

최근의 변화 양상

최근 2, 3년 전부터 한국사회학회 정기 학술대회의 양상은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른바 ‘비판사회학’ 또는 ‘진보적 사회학’을 대변하는 논자들이 그 대회의 공식 발표자로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1989년 후기 사회학대회에서는 ‘80년대 한국사회와 비판적 인식의 전개’라는 주제로 진보적 사회학자들의 발표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광범하고 활기찬 토론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 발표와 토론은 전남출판사에서 「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실 80년대 사회학계에서 진보적 입장을 갖는 연구자들은 제도권 바깥의 ‘계야’로 간주되어 주류사회학계에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특수한 정치적 현실에 기반하여 젊은 연구자들 대부분이 ‘사회적 실천에의 강한 지향’을 갖는 비판사회학에 경도되어

왔고, 그들의 연구성과들이나 집단적 실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학대회의 양상 변화는 바로 ‘비판사회학’의 실체를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사회학계는 다른 사회과학 분과보다 열린 태도를 보여주었고,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담화구조를 형성했다는 적극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민주적 담화구조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생산적인 학문성과들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가인데 이 점에 관한 한 주류사회학과 비판사회학을 막론하고 아직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80년대의 사회학을 ‘주류사회학에 대한 대항적 패러다임으로서 비판사회학의 정립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면, 90년대의 사회학은 ‘연구생산력의 질적 발전을 통한 한국사회학의 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회과정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어온 몇 가지 논쟁적 문제들을 소화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70년대 80년대 초의 한국사회학

70년대까지 한국사회학은 구조기능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과잉 지배’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회학계의 중진학자들이 대부분 미국유학 출신이었고, 경험적 연구를 강조한 이들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학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구조기능주의에 이론적 입지를 두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분야

80년대의 사회학을 주류사회학에 대한

대항적 패러다임으로서 비판사회학의

정립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면,

90년대의 사회학은 연구 생산력의

질적 발전을 통한 한국사회학의 정체성

확립의 시기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학의 이같은 전회과정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어온 몇가지

논쟁적 문제들을 소화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있던 사회변동론에서는 근대화론이, 계층론에서는 기능주의적 계층이론이, 농촌사회학에서도 문화인류학적 기능주의 이론이 당연한 이론적 가정으로 수용되었다. 70년대에도 이러한 구조기능주의의 ‘과잉 지배’에 대한 반론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역사적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을 중시하는 유럽의 사회학을 소개하는 형태로 또는 미국 내의 반주류적 패러다임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또는 미국적 비판사회학을 한국사회에 접목시키려는 형태로 나타났다. 유럽사회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되었고, 미국의 반주류 패러다임들의 소개는 김경동 교수가 인간주의 사회학을 제창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미국적 비판사회학의 한국적 적용의 모범적 예는 한완상 교수의 ‘민중사회학’에서 찾아볼 수 있

다. 특히 한완상 교수의 민중사회학은 그 자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한 80년대 비판사회학의 맹아 역할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80년의 정치적 경험은 지식사회학적 맥락에서 볼 때 사회과학계 일반에서 ‘인식론적 전환의 주요한 계기’를 이루었다. 민주화의 염원이 깨져나가면서 우리 현실에 대한 보다 엄정한 비판적 인식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이 많은 젊은 연구자들에게 공감되기 시작했다. 사회학계에서도 한국적 현실과 조화되지 않는 미국적 패러다임보다는 분단과 제3세계적 종속, 정치적 계급적 갈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선호되었다. 근대화론에 대한 대체이론으로서 종속이론 또는 생산양식 접합론이 각광을 받았고, 유럽의 네오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들 이론에 대한 ‘창조적 번역’ 작업이 이 시기에 상당히 활성화된다. 김진균, 이효재 교수 등이 분단 시대의 사회학을 들고 나온 것도 이때이다. 또 비판적 관점에 입각한 주목할 만한 한국사회분석 성과들이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허석렬, 조희연 교수 등의 비공식 부문에 대한 의미 있는 사례연구들이 산출되었다.

80년대 중반 이후의 흐름

종속이론이나 서구의 네오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은 이들 이론들의 현실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출판을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국제저작권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은 책· 많이 읽히는 책을 찾고 계십니까?
바다저작권회사를 만나보십시오!

저작권분야에서는
특히 전문도서분야에도 노후우를 축적,
아트 북, 건축도서, 의학서적 등,
번역권과 리프린트권에 대한 계약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다저작권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습니다.



책의 기획에서부터
번역, 편집, 북디자인, 출판광고 등
책 만들기에 관한 한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해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빌 I 1702호
☎ 312-9135, 362-3138
FAX. 393-9786



설명력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이 그 이유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은 이들 이론을 소화할 만한 우리 학계의 이론적 역량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데서도 기인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한국의 현실이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과 동일시되기에 매우 어렵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 유달리 강조되었던 80년대의 상황에서 종속이론이나 네오마르크스주의가 제공해주는 실천적 방향이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나 또는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도 이들 이론들의 생명력이 길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강력한 요인이다.

비판사회학적 흐름이 급격하게 이른바 '정

통 마르크스주의'로 경도되게 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특히 그 계기를 이룬 저작이 서관모 교수의 「한국 사회의 계급구성 연구」(한울, 1985)였다. 주로 동구마르크스주의로 채색된 정통마르크스주의는 단순명쾌한 설명도식, 변혁이론적 문제설정 등으로 소장 학자들의 관심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흡수했다. 이는 실천운동권에서 '정통의 복원'을 강조하게 된 것과 거의 같은 과정을 이루고 있다. 출판계에서 동구권 책들이 대량 번역된 것도 이 시기이다. 연구 주제로는 계급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고, 그에 따른 논쟁이 '사회구성체론쟁'과 더불어 전개되었다. 비공식부문론이 크게 비판되었고, 노동자계급의 범위와 중간층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노동문제에 대한 구체적 연구 성과들도 거칠기는 하지만 여러 형태로 산출되었다. (예컨대 「한국사회 노동자연구」(백산서당, 1989))

그러나 정통마르크스주의로의 경도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동시에 '교조주의'로의 함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구체적 분석보다는 원전의 재해석에 보다 큰 중점을 두으로써 혼고학적 관념론에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었다. 실제로 '목소리만 높고 구체적 분석은 빈약하다'는 주류사회학계의 비판사회학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경청될 필요가 있다. (물론 주류사회학 또한 이 점에 관한 한 자신만만할 수만은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동구사회주의의 위기는 비판사회학계에 중요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동구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판사회학의 담화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교조주의로부터 탈피하여 구체적인 현실 분석을 풍부화하는 것으로부터 비판사회학의 활로를 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광범하게 공유되어가고 있다. 「창작과 비평」에서 지속시키고 있는 계급론 논쟁, 그리고 노동과정론 논의의 활성화,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및 서구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의 제고 등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특히 한상진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제기하고 있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인식의 수용 문제는 한동안 비판사회학계의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류사회학과 비판사회학 각각이 폐쇄적인 담화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논쟁적이면서도 상보적인 담화구조를 확보해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사회학의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이제 양자의 경쟁은 서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재단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의 성과와 그를 뒷받침할 탄탄한 이론적 구성의 성취도에 의해 가름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 바로잡습니다

지난 85호(6월 5일자) 12쪽의 시집특집 기사 중 "구속당하는"을 "불구속당하는"으로 바로 잡습니다.



다물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성이 가득한 책을 만듭니다. ”

좋은 책은 알찬 내용과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자와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표지디자인 뿐만 아니라 본문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도 독자를 배려하는 정성이 넘칠 때 좋은 책이 주는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다물기획은 좋은 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인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10-83 전화: 292/4546, 294/9639 Fax: 294/6443

각종 지류(紙類) 도매 소매

高麗紙業社

● 서적지 ● 모조지 ● 아트지 ● 엠보싱지 ● 레자크지

고려지업사는 단행본 출간에 필요한 모든 종이를 다량 확보하여 소량의 종이도 최선을 다해 보급해 드리는 데 업무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제지회사로부터 감수해야 했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대중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적출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807호 전화 271-2581, 2 팩시밀리 269-8890